

“급락장 속 생활비 벌려고”… 자산 양극화, ‘빚투’ 부추긴다

국내 상위 10 종목 평균 수익률 -17%
서학개미 수익률도 -18.02% 기록

나흘간 빚투 규모 3조 가까이 급증
반대매매, 하반기 日 평균 412억
청년층, 포모에 고위험 투자 내몰려

“생활비라도 벌려고 대출받아 주식을 했는데 희망이 없다”며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강제 청산당하고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 지르며 회사 복도에서 우는 부장이 있다. 대출을 다 쓰고 노후자금까지 털었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개미투자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가운데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지난 1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빚투 손실 악순환?

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46.42%, 2위 삼성전자는 -31.14% 하락했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품 논쟁의 영향이다. 빅테크들이 이익·현금흐름을 뛰어넘는 지출을 부채로 메우고 있고, 수익률 하락 압박을 받는다는 게



ChatGPT로 생성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를 확대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본질이다. 여기에 ‘순환 금융’이 논란을 증폭하는 중이다. 반도체 회사가 AI 기업에 지급보증을 하고, AI기업은 이걸 바탕으로 돈을 빌려 반도체 회사의 제품을 사는 식이다. ‘생산적 거품’이라는 반론도 있다. 개인 순매수 3위인 삼성전자는 -41.6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셀온’(Sell-on·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 성격의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순매수 4위 한화솔루션(3.83%)과 OCI홀딩스(32.63%)를 제외한 나머지 순매수 10위권 내 LG디스플레이(-13.79%), LS일렉트릭(-

12.39%), 대한전선(-14.75%), 두산퓨얼셀(-40.45%) 모두 평가 손실상태다.

인천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박모(32)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1~10일 서학 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7억1646만달러로 집계됐다. 6, 7월에 이어 세달 연속 순매수가 능성이 커졌다. 코스피 상승세와 국내 시장 부극을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4월에는

순매도(4억6883만달러)로 전환했고, 5월 순매도(9억3977만달러)는 커졌다. 하지만, 6월 다시 매수 우위(6억3296만 달러)로 바뀌었고 7월(46억4240만 달러)에는 그 폭이 대폭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7-8월 두 달간 미 증시에 쏟아 부은 자금은 53억5800만달러가 넘지만,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 이 기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약 -18.02%에 달한다. 이 기간 미 증시 S&P500(3.38%)과 나스닥 종합지수(1.49%) 수익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 자산 불평등이 만든 현실

하지만 지난 7월 말 5000선으로 밀렸던 코스피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2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일 27조4038억원으로 줄었던 빚투 규모가 나흘 동안 3조원 가깝게 늘어난 셈이다.

5대 은행 마통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불어났다.

증시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

식에 투자했다가 강제 청산된 반대매매도 하반기 하루 평균 412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342억원보다 70억원 가량 많다.

개미들이 빚투에 내몰리기 쉬운 배경에는 심화된 자산 양극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올랐다. 0.625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으로 본다. 통상 0.4를 넘으면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고 본다.

특히 청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고위험 투자에 내몰리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 격차가 타 세대보다 빠르게 확대돼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형성 압박도 커졌다는 의미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빚투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만큼 가급적 자제하고,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국면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도시바 지분매각에 키옥시아 ‘최대주주’로

도시바 지분율 14.48% → 14.12%
BCPE 판계아 케이맨2 지분 14.19%
낸드 시장 경쟁자이자 투자자 위치

SK하이닉스가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 위치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가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은 아니며, 도시바의 지분 매각으로 SK하이닉스와 연결된 투자목적회사가 최대주주가 됐다.

11일 키옥시아와 일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도시바의 키옥시아 지분율은 기존 14.48%에서 지난 3일 기준 14.1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분 14.19%를 보유한 ‘BCPE 판계아 케이맨2’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회사는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SK하이닉스는 SPC의 결원 대부분을 가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 CB를 전환하지 않아 키옥시아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키옥시아 일본 요카이치 공장.

/키옥시아

상태는 아니다.

◆ 4조원 투자 8년 만에…도시바 매각으로 순위 역전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관계는 2018년 시작됐다. 당시 도시바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낸드 사업부인 도시바 메모리를 매각했다. 베인캐피탈이 주도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SK하이닉스는 총 3950억원, 당시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2660억엔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SPC에 출자하고, 나머지 1290억엔은 키옥시아 지분

을 보유한 별도 SPC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도시바메모리는 2019년 키옥시아로 이름을 바꿨고 2024년 12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키옥시아 주가가 오르자 베인캐피탈은 보유 지분을 잇달아 매각했다. SK하이닉스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키옥시아가 지난 6월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시바는 지분 17.5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BCPE 판계아 케이맨2는 키옥시아 주식

7740만주를 보유한 2대주주였다. 이후 도시바가 지분을 추가로 처분하면서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없이 두 주주의 순위가 바뀌었다.

◆ 경쟁사이자 최대주주 측 투자자…CB 전환은 아직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와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최대주주인 SPC와도 연결된 투자자라는 위치에 놓였다. 자회사 솔리디움을 통해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을 벌이고 있어 키옥시아와 직접 경쟁하는 관계다.

키옥시아는 유가증권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SPC의 의결권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잠재적인 이해상충 위험으로 제시했다. CB가 전환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SPC를 통해 키옥시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은 양사 모두에 호재다. 밴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키옥시아가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은 전 분기 대비 35% 증가다. BofA는 이를 근거로 키옥시아의 낸드 평균판매가격이 약 20%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키옥시아의 실적과 기업가치 상승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투자 관리의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실제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CB를 SPC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더 높은 지분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 키옥시아의결권의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각국 경쟁당국의 독점금지법 심사와 일본 외환·대외거래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 6월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각국 독점금지법과 일본 외환·외국무역법상 필요한 절차를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CB를 SPC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국내 ETF 시장서 7150억 빠져나가

해외자산 ETF에 3230억 유입

8월 들어 올해 처음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유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코스콤 체크(CHECK)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3~6일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원이 순유출됐다. 코스피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7월에도 한 달간 ETF 시장에 19조2000억원이 유입됐는데,

8월 들어서면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국내 자산 ETF에서 7150억원이 유출됐다. 해외자산 ETF에서 3230억원이 유입된 것과 대조적이다.

8월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7개월간 국내 주식형 ETF로 유입된 자금은 월평균 8조5000억원,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달에도 14조원의 자금 순유입

이 발생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해외자산 ETF에는 323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7월 5조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자산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심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자산 ETF의 자금 이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이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KB자산운용, 美 우주·위성통신 ETF 선택

‘RISE 美우주위성통신 ETF’
위성통신 산업 집중 설계

KB자산운용은 미국 우주·위성통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RISE 미국우주위성통신 ETF’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위성 제조·발사 ▲위성통신 장비·네트워크 ▲위성통신서비스 ▲위성데이터·서비스 등 4개 영역에 속한 미국 기업 10곳에 투자한다. 한 종목의 비중은

정기 변경 시 최대 25%로 제한하며, 연 4회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한다.

이 ETF는 위성통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만 편입해 위성통신 산업에 대한 노출도를 100%로 높게 특징이다. 기존 국내 상장 미국 우주 테마 ETF들이 방산이나 발사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위성통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하은 기자